“日 꺾고 자신감 업그레이드”

허정무號 오늘 숙적 일본과 자존심 대결

최종엔트리 23명 옥석가리기 무대될 듯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통산 72번째(현재 39승20무12패로 한국 우세) 대결을 통해 ‘자신감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허정무(55) 감독이 이끄는 26명의 태극전사는 24일 오후 7시20분 일본 사이타마시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오카다 다케시(54) 감독이 지휘하는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한일전은 지금까지 치러왔던 평가전의 성격을 넘어 남아공 본선에 나란히 오른 한국과 일본 대표팀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단 한국은 30명의 예비엔트리에서 4명을 추린 26명의 선수로 해외 원정길에 나서 최종엔트리 좁히기에 나선 만큼 한일전을 통해 ‘옥석 가리기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자칫 과열될 수도 있는 한일전의 성격상 월드컵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자칫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만큼 평가전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게 허 감독의 생각이다.

반면 일본은 이번 한일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23명의 최종엔트리를 일찌감치 결정한 일본은 한일전을 치르고 곧바로 스위스 유럽 전지훈련을 떠나게 돼 이번 경기가 남아공 월드컵 출정식 무대여서 총력전으로 나설 태세다.

이 때문에 허정무 감독은 ‘이겨도 본전’이라는 한일전의 성격을 잘 살리면서도 주전 경쟁에 나선 선수들의 기량을 테스트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기로 했다. 허 감독은 우선 최근에 허벅지 부상에서 벗어난 박주영(모나코)을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허 감독은 박주영의 출전시기에 따라 대표팀 전술도 바꿀 전망이다. 우선 4-4-2 전술로 시작해 박주영을 후반에 투입해 원톱으로 내세워 4-2-3-1 전술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 된다.

박주영이 후반에 출전하면 대표팀은 먼저 염기훈(전북)과 이근호(이와타)를 투톱으로 좌우에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이 포진하고 중앙 미드필더에 기성용(셀틱)-김정우(광주) 조합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

포백에는 이영표(알힐랄)-조용형(제주)-곽태휘(교토)-오범석(울산)이 먼저 나서고 이정수(가시마)와 차두리(프라이부르크) 등을 교체 투입할 전망이다. 골키퍼는 이운재(수원)가 맡는다.

4-2-3-1 전술로 나서면 박주영을 원톱으로 좌우에 박지성-이청용이 뛰고 기성용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는 전형을 취하게 된다. 이러면 김정우와 짝을 맞출 더블 볼란테 자리에는 김남일(톰 톰스크)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골 맛을 봤던 ‘젊은 피’ 이승렬(서울)도 에콰도르전에 이어 또 한 번 ‘깜짝 조커’로 역할을 맡을지도 기대된다.

반면 일본은 최근 한일전 세 경기 연속 무승(2무1패)에서 벗어나려고 미드필더를 강조한 4-5-1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

‘전술 변화·중압감 탈출’ 두토끼 잡는다

허정무 “박주영 활용 팔색조 전술 시험 최적의 기회”

“다양한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일본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역 시절인 1976년 제5회 한일정기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처음 골맛을 봤던 허 감독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예선과 1985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 2차전에서 나란히 골을 기록했다.

사령탑을 맡고 나서도 일본과 만나 패한 적이 없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 2-0 승리를 거둔 허 감독은 2000년 4월 일본과 친선경기에서도 1-0으로 이겼다. 또 2008년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지난 2월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에선 각각 1-1 무승부와 3-1 승리를 이끌었다.

선수와 사령탑으로서 일본만 만나면 ‘불패신화’를 일궈낸 허정무 감독이 사령탑으로서 자신의 네 번째 한일전 지휘에 나선다.

◇한국-일본 ‘동상이몽의 평가전’

한국은 23명의 최종 엔트리의 윤곽을 짜기 위한 ‘옥석 가리기’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반면 일본은 이미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한 상황에서 기분 좋게 한일전에서 승리하고 해외 원정길에 나서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54년 3월 스위스월드컵 예선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까지 총 71번을 맞붙었고, 한국이 39승20무12패로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최근 3경기 연속 무패(1승2무·승부차기 승리는 무승부로 기록)를 달리고 있다.

허 감독은 이번 한일전의 의미를 전술 변화와 중압감 탈출에 두고 있다.

더불어 한일전이 치러질 사이타마 스타디움 전 좌석이 매진된 만큼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에게 경기의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이번 한일전의 또 다른 목표다.

◇전술시험의 최적 무대

허 감독은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하면서 두 가지 전술을 시험했다. 투톱 스트라이커를 내세운 4-4-2 전술과 원톱 공격수를 세우고 더블 볼란테로 수비를 강화한 4-2-3-1 전술을 가동했다.

지난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선 박주영이 부상으로 빠지는 통에 4-2-3-1 전술을 시험해보지 못했던 허 감독은 이번 한일전에서 박주영을 활용한 4-2-3-1 전술을 써 볼 전망이다.

4-4-2 전술은 공격적인 성향을 강조한 것이고, 4-2-3-1 전술은 허리를 두텁게 다진 수비형 전술이라는 게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설명이다.

아직 실전에서 제대로 전술을 펼쳐볼 기회가 없었던 허 감독으로선 한일전이 ‘팔색조 전술’을 펼칠 최적의 기회가 된 셈이다. /연합뉴스

이탈리아의 인테르 밀란 선수들이 23일 스페인 마드리드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독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45년만이야” 인테르 밀란 챔스리그 우승

밀리토 2골 뮌헨 2-0 격파…사상 첫 ‘트레블’ 달성

〈시즌 3관왕〉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강호’ 인테르 밀란이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우뚝 섰다.

인테르 밀란은 23일(한국시간)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혼자 두 골을 몰아친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격수 디에고 밀리토를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5년 연속 우승과 함께 이탈리아 컵대회인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정상에 올랐던 인테르 밀란은 이로써 이탈리아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시즌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인테르 밀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1965년 이후 45년 만이고 팀 통산 세 번째다.

‘명장’ 조제 무리뉴 인테르 밀란 감독은 2003~2004시즌 FC포르투(포르투갈)를 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이끈 뒤 6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두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건 무리뉴 감독이 통산 세 번째다.

반면 독일 분데스리가와 컵대회를 석권하며 시즌 3관왕인 ‘트레블’에 도전했던 뮌헨은 주전 미드필더 프랑크 리베리(프랑스)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2001년 이후 이 대회 통산 5번째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경기 주도권은 바이에른 뮌헨이 잡았지만 결과에서 인테르 밀란이 승리했다. 공격 점유율에서 7대 3으로 앞설 정도로 우세한 경기 내용을 보인 바이에른 뮌헨은 인테르 밀란의 역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선제골이 나온 상황도 그랬다. 아르연 로번을 앞세운 뮌헨의 공세에 계속 밀리던 인테르 밀란은 전반 35분 줄리우 세자르 골키퍼의 골킥을 밀리토가 헤딩으로 받아내며 첫 골의 발판을 놨다. 밀리토는 베슬러이 스네이더르에게 헤딩 패스를 연결했다가 상대 문전으로 파고들며 다시 패스를 이어받았고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만든 뒤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1-0을 만들었다.

이후 뮌헨은 로번의 중거리슛, 후반 시작과 함께는 토마스 뮐러가 골키퍼 정면에서 슛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이 인테르 밀란의 골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인테르 밀란의 ‘빗장 수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두 번째 골 역시 밀란의 해결사 밀리토가 뽑았다.

후반 25분 사뮈엘 에토오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왼쪽 사이드로 침투하던 밀리토에게 긴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이어받은 밀리토가 그대로 페널티 지역 안쪽까지 파고든 뒤 상대 수비수 다니엘 판 뷔텐을 개인기로 제치고 오른발 슛을 차넣었다.

아르헨티나의 2010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 최종 23명에 포함된 밀리토는 이날 맹활약으로 한국 대표팀에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테니스 요정’ 샤라포바 통산 22번째 우승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13위·러시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스트라스부르 인터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샤라포바는 23일(이하 한국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크리스티나 바르와(67위·독일)를 2-0(7-5 6-1)으로 물리쳤다.

지난 2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투어 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던 샤라포바는 시즌 두 번째, 개인 통산 22번째 투어 단식 타이틀을 따냈다.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3월부터 2개월여 공백이 있었던 샤라포바는 이날 밤 막을 올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프랑스 오픈 전망을 밝혔다.

1세트에서 게임 스코어 3-5로 뒤지던 샤라포바는 이후 7게임을 연달아 따내며 순식간에 경기 흐름을 뒤바꿔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5.27.(목) ~ 2010.06.01.(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경력자포함), 자산운용전문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직원 종사자, 개발업 직원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폴라리스 복합상가
분양/임대

봉선동 2만여세대 완전 중심 상권 / 최고의 투자가치

모두가 꿈꾸는 탁월한 선택,당신의선택이 당신의미래를 만듭니다.
봉선동 중심상권!! 최고의 입지!!
봉선동 폴라리스 복합상가에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미래가치가 보이는 성공사업을 약속합니다.

편리하고 넓은 주차공간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하 60대, 지상 12대

1F 프리미엄 상권으로 최고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은행/대형음식점/패스트푸드/약국 귀금속/동물병원/핸드폰대리점/커피전문점 등

2F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합니다.
권/장/업/종 병의원/한의원/치과/미용,피부관리/커피전문점/당구장

3F 밀집된 학군으로 최적의 조건형성
권/장/업/종 입시전문학원/독서실/보습학원/외국어학원/체육관/기타학원

4F 대단위 유동 인구와 소비여력의 최적화 상권
권/장/업/종 스포츠센터/패밀리레스토랑/스크린골프/학원/기타

폴라리스 분/양/임/대/문/의 062)674-4900